마음을 알면 삶은 거저다

(에스겔 41:1~26)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2.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3.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4.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알면 삶은 거저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을 알면 삶은 거저다'

'마음을 알면 삶은 거저다'라는 말은 마음을 알면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대한 책으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Search inside yourself)"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본래 구글의 엔지니어 차드 멍 탄(Chade-Meng Tan)이라는 사람이 만든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명상법대로 7주에 걸쳐 20시간의 훈련을 하다보면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정조절능력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고, 덕분에 업무능력도 높아지고 리더십도 생기며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히 말해 명상의 생활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자면 "마음 챙김은 주의력과 뇌기능으로부터 면역성과 피부병에 이르는 거의 모든 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 마음 챙김은 마치 맥가이버의 칼처럼 쓸모없는 요소가 없다"라고 합니다. 외부에 대한 관심을 내부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지만 자신을 찾기 위한 마음의 검색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챙기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상 훈련은 아홉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전체 내용을 한 마디로 줄이면 "반응의 시간을 늦추라"는 것입니다. 단계마다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2분간 자신의 호흡에 지속적이고 부드럽게 유의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세수할 때 코만지는 것보

다 쉽다. 아무 계획 없이 2분 동안 앉아있기만 해도 좋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감정이 격동할 때에 멈추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도 중요한 기술이다. 그저 잠깐만 반응을 자제하라. 이 순간은 신성한 멈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다음 단계는 호흡이다. 호흡하는 일에 의식을 집중시켜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나는 아내나 동료와 다툼이 생기면 다른 방에 가서 몇 분간 감정을 가라앉힌 후 상대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처럼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의 건강과 행복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기원한다. 이렇게 하고 겨우 몇 분이 지나게 되면 나 자신과 상대 그리고 전체 상황에 대해 훨씬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와 함께 분노의 상당 부분이 즉시 휘발된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과 갈등에 휘말릴 때마다 이 연습을 해보라. 아마 여러분의 관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날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민망하고 유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하루에도 백 번 천 번이라도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이고, 이 십자가 생활화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에 올라간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주시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앉힌바 되어서 영생을 생활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약속된 복락에 비교하자면 삶의 환경이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에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2분간 명상을 하는 것을 신성한 멈춤이라고 주장하는 저자의 발상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한 마음에 관심하기를 교회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 반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은 한낱 명상법의 실천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상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위험하고 큰 부작용과 폐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알아야만 하는 교인들이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대개의 교인들이 이에 즉각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명상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2분간은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호흡에라도 집중함을 통해서 잠시나마 세상에 대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기에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이해

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라도 함으로써 자기들 딴에는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즉각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몸이 좀 아프면 즉각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여기고 주저 없이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명상법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2분간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병을 호전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상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완전한 해결법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세상이 들어온 상태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명상의 과정과 닮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갔을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갖게 되고,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과를 요구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를 해서 상대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검색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았다면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합당한 조처가 취해지고 나면 삶의 문제 또한 거저 해결되게 됩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명상법처럼 2분간 반응을 멈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에 돈이 들어온 상태가 바로 죄임을 알고 십자가에서 그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되면 어느덧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기 전에 우선 마음을 검색하고 마음에서부터 해결이 이루어져야만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음의 검색을 위한 해결법을 지성소와 성소의 환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의 환상은 이 땅에 지어질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37장에서 마른 뼈의 환상에서 보았듯이 선민의 정체성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며 당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선 설교를 통해 지성소와 성소가 인간의 마음 구조를 상징함을 배웠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통해 마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모든 문제 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

다.
지성소와 성소의 관계는 사람의 영과 혼(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하는 곳이 곧 지성소로 비유 된 영입니다. 다시 말해 영은 어떤 대상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채워지리라는 믿음이 작용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믿음의 대상으로 이름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지성소에서 붙잡은 이름을 실제로 추구해서 얻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지정의의 활동이 생겨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며 감정으로 느끼고 뜻하고 의지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마음은 곧 지정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주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겠다고 믿어지는 영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 지정의를 발동하게 됩니다. 감정조차도 돈을 많이 벌면 기쁨을 느끼고 돈이 안 벌리면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건강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지정의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의 형통이라는 이름을 붙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의해 인격이 생겨납니다. 지정의의 능력을 지닌 마음 주머니에서 생겨난 나라는 의식이 곧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의 구조에 입각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지성소에서 세상의 이름을 붙잡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곧 지정의의 활동이 가능한 고깃덩어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검색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삶 전반에 걸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대조하며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성소는 마음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의 영역입니다.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단순히 그렇다는 사실에 이해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돈이 있어야 채워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담기 위한 마음의 지성소에서 돈을 믿게 됨으로 인해 지정의를 가진 고깃덩어리가 되었음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한 사람을 지면에서 홍수로 다 쓸어버려도 아쉬움이 티끌만큼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쓸모없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검색하고 살펴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마음 검색을 생략해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은근히 바라든 노골적으로 바라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

조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들어온 내면을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에 비추어 검색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믿음의 처소입니다. 성소는 지성소에서 믿음으로 붙잡은 대상의 이름을 지정의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추구하는 장소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의 모습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재할 때에는 지성소 안에는 오직 법궤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법궤의 행방 또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계셔야 함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존재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마음의 구조입니다.

실천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우선 마음을 검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문제들의 이름이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번제단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상이 들어온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마음에 세상을 담은 상태에서 지정의의 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동선을 따름으로써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게 되면 삶의 문제 또한 거저 해결되게 됩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벽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벽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벽의 바깥쪽에는 30개의 방이 3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90개의 방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제사장의 옷을 비롯한 성전 운용을 위한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삶을 유지해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이 이렇게 방에 나누어져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비누 같은 것에서부터 크게는 자동차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까이 근접해있지만 결코 지성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두꺼운 벽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어서 백을 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구조에서 기구들이 보관된 방이 두꺼운 벽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명품 백 같은 대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명상법에 따르자면 명품 백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에 2분간 멈추어 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말로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이 들어온 마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갖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련된 어떠한 대상들도 마음에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명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궁극적 해답을 얻고자 하지 않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마음의 영역을 살펴보는 일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 보세를 외치자 교회도 따라서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삶의 환경에서 풍요와 다산과 부흥을 일으켜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산 결과 오히려 교인들의 이탈을 재촉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신성한 멈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신성한 멈춤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는 교회가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의 해결을 불교의 참선과 힌두교의 명상에서 찾을 뿐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음의 문제에 정확하고 궁극적인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성경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성전 본체의 뒤쪽에 위치한 부속 건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건물은 성전과 매우 가까이 있으나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예 다른 입구를 지나야만 합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성전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본체와 아주 밀접하게 존재했으나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좋게 여겼던 대상들이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상태는 이처럼 철저하게 격리되어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더러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버리는 곳이 바로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망치는 모든 더러움과 죄는 마음의 지성소에 잘못된 이름이 담김으로써 시작됩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그 해결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괴롭고 근심하고 평강이 없다면 그 이유를 마음의 지성소의 상태를 검색해봄으로써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름이 없고 재정 문제가 있다면 돈을 붙잡았고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태워진 마음은 쓰레기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성전에 남아야 하는 것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된 마음뿐입니다.
본문에는 또 분향단과 떡 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분향단은 기도 즉 추구함을 의미하고, 떡 상은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마음에 만족함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삶에서는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정의를 통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몸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마음을 알면 삶은 거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성한 멈춤을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궁극적인 신성한 멈춤은 십자가 바라보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기를 지속하게 해주셔서 거저 살아지는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